

일 주 문

공불련 세종 청사 법회서 법문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2월 4일 세종청사서 열린 공불련이 개최한 신년법회에서 법문했다.

해군 불자생도 졸업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2월 7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졸업법회를 개최한다.

보명한의원과 한방진료 협약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은 1월 29일 서초 보명한의원과 저소득 장애어르신 개별맞춤진료 협약을 맺었다.

제주도 특별성지순례 봉행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3월 27~28일 제주도 특별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참선집중수행 참가자 모집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2월 15일까지 참선집중수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061)533-3521

불교문화 국비지원 공모 접수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2월 15일까지 2013년 불교문화행사 국가보조금지원사업 시행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02)2011-1779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중훈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9일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 결사총괄 부장에 중훈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괄부장은 사무국과 화쟁위원회, 결사위원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직제다. 중훈 스님은 능가 스님을 은사로 1971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 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2006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천 보광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1일 인사를 단행했다.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 우재선 ▲공과대학 부학장 박준영 ▲과학영재교육원장 김진정 ▲박물관장 정우택 ▲바이오자원생태부장 겸 학술팀 관리소장 강호덕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홍성조

“운영 내실화·콘텐츠 개발에 주력”

문화 사업단 신년 기자회견
3월 발전 방안 수립 예정

“문화사업단은 그간 템플스테이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고, 이에 대한 일정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제는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조사 연구 등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임명된 정산 스님(사진)은 1월 27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운영 기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마무리를 풀었다.

스님이 강조한 운영 기조는 △운영 내실화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 △사찰별 특성화 전략 등으로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시즌2’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운영 인력 지원이다. 이를 위해 운영 인력의 경력관리와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인력 처우 개선에 나선다. 그간 천차만별이었던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을 위한 보수 체계 확립과 복리후생, 포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템플스테이로 굳어져 있는 문화 사업단의 업무를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로 확장하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전반을 다



실무자 급여 체계 확립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
사찰음식 경연대회 개최

양한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불교문화상품의 영역 조사를 통해 불교문화 자원이 어떻게 특성화되고 산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또한 국내외 순례상품 개발과 브랜드 런칭을 통한 인지도 향상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음식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항

을 확대하고 사찰음식 현황 및 고문헌, 기능성 등 전문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찰음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식문화 개선 범국민 캠페인과 5월 중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시즌 2’로 접어든 템플스테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간 문화체험 중심이었던 템플스테이를 사찰별로 특성화해 수행, 휴식, 힐링 등 영역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찰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곧 사찰만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산 스님은 “문화사업단은 향후 사찰 자원의 역할을 고려하고 수요자의 요구 및 사회적 트렌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찰별 콘텐츠 제공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템플스테이가 정신, 사회 문화, 경제 등에 순기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성 강화는 템플스테이가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사업기조를 발표한 문화사업단은 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시대적 아픔 공감하는 ‘佛靑’ 되자”

대한불교청년회 제26·27대 중앙회장 이취임식



전준호 중앙회장이 지도법사 덕신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이양받고 있다.

“젊은 불자의 기백과 용기, 지혜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전법도생의 정도 건설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26·27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소통·화합·비상하는 청년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지도법사 덕신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귀의·반야심경·

장군죽비 이양·재직 기념패 전달·이취임사·범어 순으로 진행됐다.

회기와 장군죽비를 이양받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제27대 중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에 산재한 시대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창립자인 만해 대선사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대한불교청년회의 화두”라며 “27대 집행부는 교육사업과 공공시설 운영, 청년인재 불사를 통해 신형·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환경 문제에 불교적 해법 찾아달라”

조계종 6기 환경위원 위촉... 위원장 장명 스님



1월 31일 4층 접견실에서 위촉된 제6기 환경위원들.

사회적 화두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6기 환경위원들을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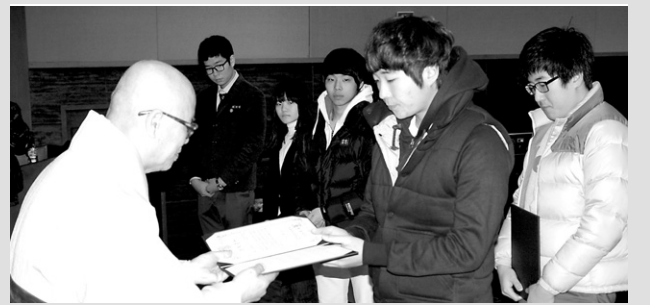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19명으로 중앙총회의원 장명 스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미등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성진 스님, 봉은사 총무국장 진경 스님, 진관사 주지 개호스님, 이병인 부산대 교수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조재희 사찰생

태연구소장 등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시대에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통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6기 환경위원회는 환경위원장에 장명 스님을, 부위원장에 이병인 교수를 선출했다.

한편, 환경위원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불교수목원 설립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사찰 적용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위한 지침서 마련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종일 기자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은 1월 27일 대구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제8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범등 스님(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은 영남지역 고교생 31명에 1인당 50만원, 대학생 19명에게는 100만원 씩 총 345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범등 스님은 인사말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불가의 불사 중 인간불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내 인생의 원을 굳건히 세워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나가라”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주지 이취임 법회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이취임 법회가 2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무원 스님은 천태종 삼광사 제11대 주지에 취임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총회위원장 문덕 스님, 감사위원장 춘광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허남시 부산시장, 김석중 부산시의회 의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문재인 의원 등 지역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무원 스님은 “삼광사를 명실상부한 포교중심 사찰로 육성하고 신도회 법회를 더욱 활성화해 유아,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국대 일본 대지진 피해자 추모

한국과 일본, 독일, 영국, 스리랑카의 불교학자들 중심으로 한 종교학자들이 1월 24~25일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인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쵸(平泉町) 및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를 방문해 지진피해자들에게 대한 추모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동국대와 일본 국립 사이타마대학(埼玉大)(학장=가미이 요시히코(上井 喜彦)) 관계자 20명은 1월 22~23일 일본 사이타마현이 공동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를 생각하다’ 이후 지진피해지역을 찾았다. 이들은 24일 히라이즈미쵸(平泉町) 존존사(中尊寺)와 모월사(毛越寺)를 방문해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공양을 위해 세워진 불상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생을 모집합니다.

Table with columns: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간, 교수, 모집인원. Lists courses for 1st, 2nd, 3rd, and 4th years, including Buddhist Music and Dance.

Table with columns: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간, 모집인원. Lists specific courses like Buddhist Music Theory and Practice.

Table with columns: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간, 모집인원. Lists general education courses for the program.

상기입학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최원허 협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02)392-3234, Fax:(02)392-3239 홈페이지:www.okchunbud.kr

- 응시자격: 수료과정: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편입학과정: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전형일정: 2013년 1월 14일 ~ 2월 28일
■전형료: 50,000원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등도 수계산람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승승려에 한하여 중대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생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중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